



보건의료노조 도미노파업투쟁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선전부국장

마치 '게릴라성 집중호우'처럼 …

지리산으로부터 시작된 게릴라성 호우가 서울·경기를 거쳐 대전, 충남, 전남북, 경북지역을 훑으며 한반도 전역을 물난리로 만들어놓았다. 시간당 엄청난 강수량을 기록하며 기습적으로 몰아친 호우는 순식간에 제방을 터뜨리고 산사태를 일으켰으며, 철로를 끊어놓고,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과 집터까지 집어삼켰다.

올해 보건의료노조의 총력투쟁은 '연쇄파업과 집중투쟁'으로 요약할 수 있다. 마치 게릴라성 집중호우처럼 보건의료노조는 하루는 서울대병원에서 집중투쟁을 펼쳤고 이어서 하루는 원자력병원에서, 또 하루는 전북대병원에서 집중투쟁을

펴붓는 식으로 집중투쟁을 이어갔다.

서울대병원지부를 시작으로 한 보건의료노조의 연쇄파업투쟁은 매일 승전고를 울리며 완승을 거두었다. 뒤따라 총력투쟁을 벌인 지부들도 연전연승을 거두었다. 그 결과 대부분 병원에서 임금에서는 병원쪽의 삭감안을 완전히 철회시켜내고 약간의 인상까지 확보해냈으며 단체협약에서는 개악안을 완전히 저지해내고 고용안정과 경영참가, 의료개혁에서 소중한 성과를 쟁취해냈다.

IMF상황을 종이호랑이로 만든 승리

사실 어느 누구도 올해 IMF상황에서 임금·단협투쟁을 낙관하지 못했다. 임금에서는 얼마나 덜 삭감당하느냐, 단체



검토회로 빙 속 조합원들이 광경천이 과에서 노동자를 힘치게 부르고 있다.

협약은 얼마나 멀었느냐, 노동조합 활동도 얼마나 멀어져버렸느냐 하는 게 관심사였다. 다른 데에서는 정리해고다 구조조정이다 퇴출이다 인수·합병이다 난리인데 요구안을 내는 것마저 죄송스럽다는 분위기. IMF시대에 일자리를 유지하는 것만 해도 어디냐면서 임금 얼마쯤이야 살감하든 반납하든 받아들여야 하지 않는다는 분위기. 거리에 실업자가 넘쳐나고 경제가 바닥을 기는데 무슨 투쟁이고 무슨 파업이냐는 분위기. 괜히 노조가 투쟁에 나섰다가 그나마 화보하고 있는 것마저도 웃게 된다면 노조가 책임질거라는 분위기….

이런 분위기에서 ▲임금 현행유지+α 확보 ▲단체협약 현행유지+개선을 이룩 해낸 것은 분명히 대성공이라 할만하다.

더구나, 김대중정부가 "불법파업을 엄단하겠다"는 암표를 놓으며 호시탐탐 탄압의 기회를 노리고, 사용자들이 전수를 잡아서 노조활동을 무력화하겠다고 틈만 노리고 있는 조건에서 파업부정을 벌여냈을 뿐만 아니라 직권중재제도를 무력화시키면서 파업지도부와 파업노동자를 완벽하게 보호해낸 것은 분명 '경이적' 이기까지 하다.

사실 처음엔 잘 준비하지 못했다.

5월 중순까지만 해도 병원의 경우 사용자들이 교섭을 연기하거나 해태해 상견례만 진행된 정도였다. 그것도 빠른 경우였고, 대부분 사업장은 5월 말이나 6월 초에 상견례를 갖고 교섭에 돌입할 수 있었

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노총은 5월 27일 1차 총파업과 6월 10일 2차 총파업을 제기했다. 보건의료노조로서는 너무나 난감했다. 금속이나 공공부문의 경우 정리해고와 구조조정을 저지해야 한다는 조합원들의 위기의식이 상당히 뚜렷하게 형성되어 있었으나 병원의 경우 부당노동행위가 극심하기는 했지만 조합원들의 의식이 이를 총파업투쟁으로 저지해야 한다는 데까지 고조되지는 못했다. 지부장들과 간부들조차도 정치파업에 대한 공감대가 적었다. 이에 따라 대부분 지부들은 민주노총의 총파업투쟁에 대한 상과 성격조차 논의하지 못했다.

민주노총은 '임단협과는 두관한 정치파업'이라고 얘기했지만 투쟁이 그렇게 쉽게 금조될 수는 없었다. 특히 민주노총의 정치파업과 보건의료노조의 임금·단협투쟁을 어떻게 결합시킬 것인지는 심각한 고민거리였다.

동시 조정신청 전술에서 연쇄파업전술로

보건의료노조는 5월 16일 중집회의, 5월 21일 지부장 연설회의와 중앙위원회 등을 잇따라 열어 투쟁의 상을 짊어려고 했지만 혼신만 가중됐다. 올해 정세를 비춰볼 때 민주노총 차원의 강력한 투쟁없이는 투쟁이 연맹별로 개별화되거나 사업장별로 개별화되어 각개격파당하고 말 것이라는 위기감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 정치파업이라고 해서 임금요구와 단협

요구, 부당노동행위 척결 등 단위현장의 요구와 투쟁준비를 무시한 채 전국총파업을 쉽게 조직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보건의료노조는 5월 27일 1차 파업, 6월 10일 2차 파업에는 결합하지 못 하지만 민주노총 차원의 전국적 투쟁전선 형성에 최대한 결합하기 위해 6월 25일까지 총파업 돌입을 목표로 하여 6월 8일~10일을 동시조정신청시기로 잡았다. 그러나 보건의료노조가 6월 8일~10일 조정신청을 집중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6월 10일로 예정된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방편으로 조정신청 집중이 계획되었기 때문에 현장준비와 괴리가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현장준비상태를 점검한 결과 조정신청은 6월 중순에야 가능하고 7월초에나 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이 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됐으며, 전국 각 지부의 동시조정신청도 가능하지 않았다. 아무리 보건의료노조가 단일노조라고 하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기업별노조시설의 교섭관행과 조합원들의 준비정도를 따져볼 때 일방적으로 전면투쟁일정을 잡고 나가기는 무리였다.

결국 보건의료노조는 조직력과 투쟁력이 있는 지부에서 선도투쟁을 벌이고 그 힘으로 불파구를 열어 나머지 지부로 타 결분위기를 확산시켜낸다는 방침을 정하고 총력투쟁시기를 7월 9일~15일로 잡아 6월 23일~25일 조직력과 투쟁력이

**7월 9일~15일을 총력투쟁시기로 정한 보건의료노조는
승리를 만들어내기 위해 산별노조의 모든 조직력과 투쟁력을 집중했다.**

있는 서울지역본부를 시작으로 조정신청에 들어가기로 했다.

“올해는 투쟁으로 돌파할 수밖에 없다”

조정신청에 돌입하려던 6월 20일 당시 까지 상반기 교섭진행률은 73%밖에 되지 않았다. 이 가운데 5차 교섭 미만이 64곳에 이를 정도로 교섭이 더뎠으며, 34곳은 아예 교섭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교섭진행중인 70개 병원 중 41개(59%) 병원이 임금삭감 내지 동결안을 내놓았고(7월 20일 61곳으로 늘어남), 나머지 병원에서도 임금반납을 요구하거나 서명을 받았으며, 임금이 체불되고 있는 곳도 많았다. 단체협약교섭 진행 중인 65곳 가운데 29곳(47%)에서도 노조활동 축소, 인사·경영 노조참여 배제, 고용안정 조항 개악, 변형근로시간제 도입, 임금삭감, 사내복지 축소 등 개악안을 제출했다.

이렇게 개악안 공방 또는 부당노동행위 등 현안문제 중심으로 공방이 펼쳐지고 있거나, 교섭지연, 눈치보기로 교섭에 진전이 없자 보건의료노조는 더 이상 교섭만으로는 사용자들이 임금인상안을 내

거나 단협 개악안을 철회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올해는 투쟁으로 돌파할 수밖에 없다”는 관점에서 조정신청을 내고 투쟁으로 돌파한다는 방침을 세운 뒤 총력투쟁에 나섰다.

산별적 투쟁을 위해 요구를 분명하게

7월 9일~15일을 총력투쟁시기로 정한 보건의료노조는 승리를 만들어내기 위해 산별노조의 모든 조직력과 투쟁력을 집중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우선 요구를 쟁점화하는 데 착수했다. 요구를 분명하게 쟁점화하는 것은 산별적 투쟁을 하기 위해서, 또한 IMF상황아래 위축된 조합원들의 투쟁분위기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또한 몇몇 지부에서 선도적인 투쟁을 하더라도 전국의 조합원들이 동참하여 함께 투쟁하기 위해서, 조합원만이 아니라 환자와 보호자를 비롯한 일반 국민들이 투쟁의 정당성을 공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노조는 주요 요구로 ▲적정인력 확보 및 고용안정을 통한 의료서비스 질 확보 ▲일방적인 구조조정 반대 ▲IMF 경제위기에서 실직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보장 ▲IMF상황을
빌미로 한 임금삭감과 단체협약 개악 반
대 등을 내걸고 이러한 내용이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투쟁이라는
점을 크게 부각시켜나갔다. 보건의료노



한국성심병원의 흥역제때를 풍원한 폭력태세에 항의하는
보건의료노조 조합원들.

조는 환자와 보호자 선진물을 만들어 매
주 수요일 지부에 내려보냈고, 신문광고
투쟁을 벌였으며, 지부별로 다양한 선전
활동을 펼쳤다.

또 6월 23일 서울대병원지부 조정신청
을 기해 기자회견을 가졌으며, 6월 29일
부터 시작하여 '의료인리 확보는 환자의
생명과 직결됩니다!' '무너지는 공공의
료 벼랑에선 국민건강' '노동자에겐 고용
안정, 환자에겐 좋은 치료' 등을 내용으
로 전 조합원 리본달기 투쟁을 벌였다.

선도투쟁에 보건의료노조의 총력을 집중하다

다음으로 보건의료노조는 각 지부들의
총력투쟁일정을 집중시켰다. 보건의료노
조는 임금삭감과 임금반납이 예상되는
곳은 타 지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타
결시점을 뒤로 배치하고 조직력과 투쟁
력으로 돌파할 수 있는 곳을 선도투쟁사
업장으로 배치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선
도사업장의 투쟁은 보건의료노조 전체의
투쟁"이며 "보건의료노조 투쟁의 성과를
가름하는 투쟁"이라 규정짓고 산별노조
투쟁의 승리를 위해 조직력과 투쟁력으
로 돌파할 수 있는 곳을 선도투쟁사업장
으로 목적이식적으로 배치했다.

또 선도투쟁사업장이 고립되지 않고
전선을 돌파할 수 있도록 파업이 가능한한
곳은 끝바로 연쇄적으로 파업일정을 잡
도록 조정신청시기를 배치하고, 현실적
으로 파업이 불가능한 곳이라도 조정신
청을 결의해 보건의료노조 차원에서 인
제든지 파업을 선언하고 돌입하는 배수
전을 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하여 설
정된 연쇄파업투쟁은 서울대병원지부→
경희의료원지부→이화의료원지부 순서.

보건의료노조는 이들 선도투쟁사업장
의 파업투쟁에 총력을 쏟아 부었다. 파업
전야제때 해당지역본부는 물론이고 인근
지역본부 역량을 최대한 동원하여 농성
장을 사수하고, 파업당일 파업대오가 안
정화되기까지 많은 역할을 결합시켰다.
보건의료노조는 서울대병원이 파업에 돌
입하는 7월 8일을 산별노조의 1차 파업
일로 선포, 전 조직에서 교섭을 일시 중

**보건의료노조는 파업이 예상되는 사업장에 대책반을 투입하고
임원진이 지부의 지도부와 함께 현장 조합원을 조직하기 위해 직접 결합했다.**

단하고 서울대병원 파업투쟁현장에 결합하여 「병원노동자 총파업투쟁 승리 결의 대회」를 개최했으며, 여기에 최대한 결합하기 위해 상집간부·대의원 공가를 미리 조직했다. 또 “보건의료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경우 전국 지부장들은 끝까지 함께 한다”는 내용의 지부장 연대서명을 인쇄대자보로 만들어 전국 각 지부사업장에 붙여 병원사용자를 압박했다.

활짝 꽂피어난 산별적 투쟁

보건의료노조는 6월 21일 중집회의, 6월 24일 지부장회의, 7월 3일 중집회의를 통해 총력투쟁과 마무리투쟁에 대한 상을 공유하고 결의를 모았으며 이같은 방침에 따라 18개 병원 23개 사업장이 조정신청을 내고 총력투쟁에 돌입했다. 파업전야제나 파업투쟁이 벌어지는 곳이면 보건의료노조 간부들은 자신의 사업장을 떠나 집중했다. 보건의료노조 파업 첫날인 7월 9일 서울대병원에는 300여 명의 전국 각 지부 간부들이 결집했으며, 이후 투쟁사업장마다 30~300여명이 함께 집결하여 투쟁하는 방식이 일반화됐다. 또 먼저 타결한 지부는 아직 타결하

지 못한 지부에 노조전임자를 파견하거나 교섭단을 교체 투입하여 끝까지 함께 투쟁하는 기풍도 정착됐다. 파업전야제와 파업투쟁기간 동안 지역본부 간부들이 함께 농성하고 파업대오를 사수하고 문화역량과 파업프로그램을 함께 배치하는 것도 일반화됐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파업이 예상되는 사업장에 대책반을 투입하고 임원진이 지부의 지도부와 함께 현장 조합원을 조직하기 위해 직접 결합했다. 본조간부와 지역본부 간부, 지부 간부로 구성된 파업지도부(비상상황실)는 조직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파업투쟁전술을 점검했으며, 정부와 사용자, 노동위원회에 대한 대응을 조직하고, 각종 지원투쟁을 조직함으로써 하나 하나의 투쟁을 승리로 만들었다.

마침내 뜻린 투쟁의 돌파구

조정신청 : 서울대병원(6/23), 경희대의료원(6/24), 이화의료원(6/25), 전남대병원(6/27), 전북대병원(6/29), 경북대병원(6/30), 원자력병원(6/30), 동국대의료원(7/6), 백병원(7/7), 예수병원

(7/7), 보훈병원(7/16), 소화아동병원(7/20), 충남대병원(7/21), 서울중앙병원(7/23), 정읍병원(7/23), 신천연합병원(6/25), 청구성심병원(7/22), 울산대병원(8/5).

서울 지역의 주요 대병원들의 선도투쟁은 곧이어 지방의 국립대병원, 대병원으로 이어졌고 후발 사업장에 이어 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이 타결되는 방식으로 이어졌다. 서울대병원지부의 경우 10시간 파업 끝에 임금삭감안과 단협개악안을 전면 철회시켰으며, 임금+α와 파업불이익 금지를 쟁취해냈다. 서울대병원에 집결하여 1박2일 동안 투쟁과정을 함께 한 전국의 지부장과 간부들은 900여명의 조합원들이 결집하여 힘있는 파업투쟁을 전개하는 모습, 보건의료노조의 지침에 따라 전국에서 결집한 보건의료노조 간부들이 함께 투쟁하는 모습, 10시간 파업 끝에 직권중지제도를 완전히 무력화하면서 요구를 힘있게 쟁취해내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감을 얻었다. 서울대병원 선도 투쟁의 승리는 곧바로 전국으로 곧바로 퍼져나갔고, IMF상황의 위축된 분위기를 깨고 조합원들이 점심시간집회나 철야농성에 대거 참여하는 자신감과 열기로 확산되었다.

서울대병원의 투쟁과 타결방식은 하나의 전형이 되어 전국으로 확산되었는데 투쟁방식으로는 조정신청→파업투쟁전 야제→타결 혹은 단기파업 후 타결 양상이 일반화됐으며, 내용상으로는 임금삭

감안 저지+임금인상, 단체협약 개악안 저지+공동요구안 확보가 일반화됐다.

이같은 투쟁력에 힘입어 경희대의료원이나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의 경우 조직력이 약했음에도 파업을 배수진으로 비슷한 타결수준을 만들어냈으며, 경영악화사업장인 이화의료원을 비롯한 몇몇 병원들은 체불임금 해결 등 현안문제를 해결하는 성과를 만들어내기도 했다.

IMF시대에 거둔 값진 승리

지금이 IMF시대라서 그런가, 보건의료노조가 연쇄파업과 집중투쟁을 벌여 거둔 성과는 빛난다. 대부분 병원에서 임금삭감을 철회시켜냈고, 서울대병원(월 3,600원), 경희의료원(년 19만원), 경북대병원(월 1만원), 고신의료원(월 4만6천원) 등 몇몇 병원에서는 동결을 뛰어넘어 임금인상을 이룩해냈다. 또 대부분 병원에서 단협개악안을 철회시켜냈으며, 8월 17일 현재 단협 타결사업장 58곳 가운데 ▲노조창립일 전일 휴무 또는 반일 휴무(9곳) ▲고용안정 사전합의(10곳), 사전협의(21곳) ▲비정규직의 정규직화(12곳) ▲정원유지(10곳) ▲고용안정 유지(8곳) ▲근로자파견제 도입시 합의(5곳), 협의(5곳) ▲인사·경영 참가(25곳), 이사회 참여(8곳) ▲자료협조 및 통지(17곳) ▲단협 일방해지 금지(17곳) ▲조합원 교육시간·소개시간 확보(5곳) ▲교설위원 공가 확대(5곳) ▲전임자 확

위축되거나 투쟁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올해 IMF상황을
투쟁으로 돌파하기 위해 조정신청을 활용한 투쟁전략을 세우고 조합원들의
위축된 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것이다.

보(1곳) ▲근무시간중 조합활동 범위 확대(6곳) ▲유니온샵 확보(5곳) ▲실직자 의료비 감면(7곳) ▲의료기기 및 의약품 국산화(7곳) ▲환자권리 확보(6곳) 등 IMF상황 가운데서도 고용안정과 인사·경영 참가 및 의료개혁투쟁의 발판을 마련하고 노조활동 조항을 확보하는 성과를 낳았다.

승리의 견인차는?

사실, 올해 병원사업장의 경우 다른 업종보다 투쟁이 쉬운 조건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다른 업종들이 IMF여파로 일방적인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인수·합병, 퇴출상황에 놓여있을 때 병원사업장은 그나마 IMF로부터 약간은 멀리 떨어져 있었던 것이다. 병원사용자들이 IMF라는 상황을 최대한 악용하려 했지만 서울대 병원의 보유운영자금이 900억원이나 되고, 경희의료원의 97년 재단전출금이 170억원이나 되며, 전남대병원의 97년 흑자가 84억3천만원이 될 정도로 병원들은 상황이 그리 나쁘지 않았다.

또한 병원사업장의 구조조정도 그렇게 빠르게 치고 들어오지는 않았다. 그러나,

보건의료노조 차원의 총력투쟁, IMF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연쇄파업투쟁전략이 없었다면 오늘의 성과는 없었을 것이며, 일방적으로 밀렸을 것이 틀림없다. 만약 보건의료노조의 투쟁이 없었다면 병원사용자들은 교섭을 해태하거나, 임금삭감안, 단협개악안을 관철시키려 했을 것이며, 구조조정을 보다 빨리 강력하게 밀어부쳤을 것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올해야말로 위기가 아니라 기회이며, 투쟁으로 돌파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위축되거나 투쟁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올해 IMF상황을 투쟁으로 돌파하기 위해 조정신청을 활용한 투쟁전략을 세우고 조합원들의 위축된 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것이다. 이 결과 IMF 상황에서도 파업 찬반투표는 예전보다 훨씬 높은 참가율과 찬성률을 기록했고, 파업전야제와 파업 때에도 87~88년 파업 때를 제외하고는 가장 많은 조합원들이 참가하는 성가를 올렸다.

IMF시대라는 어려운 조건과 불리한 여론공세를 뛰어넘기 위한 파업투쟁 결의, 보건의료노조 차원의 연쇄파업과 집중투쟁, 조직의 총력을 동원한 돌파구 만

들기 위한 투쟁을 승리의 견인차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투쟁을 가능하도록 만들기 위해 위축된 분위기를 뚫고 현장순회, 집회, 속보 배포, 단식투쟁, 단체복입기, 삭발투쟁, 조합원 교육선전, 철야농성 등을 조직해 조합원들의 투쟁동력을 끌어올리려 애쓴 간부들의 공로가 크다.

전체 산별적 투쟁을 조직하기 위해 이런 작은 투쟁들이 모여 비구름대를 만들고 마침내 집중호우를 만들어 IMF벽에 기댄 정부와 병원사용자들의 공세를 허물어뜨리고 만 것이다.

장기투쟁

그러나, 빛나는 투쟁의 한 면에는 어두운 측면이 있다. 조직력이 어느 정도 있고 병원규모가 큰 곳이 연전연승을 거두면서 타결되었지만 조직규모가 작은 사업장이나 병원경영이 아주 어려운 곳, 조직력이 취약한 곳은 아직도 교섭이 난항을 겪고 있다. 또, 이미 악성탄압사업장으로 명성을 날리고 있는 대전성모병원, 청구성심병원, 한양대의료원, 서울기독병원, 동산의료원 등에서는 현안문제가 풀릴 기미가 없다.

교섭대기능성을 떨이는 조합원들에게 뚱물을 펴붓고 식칼을 휘두르며 폭력테러를 벌인 청구성심병원에서는 노조 쪽이 7일간의 투쟁 끝에 폭력근절과 조합원 신변보장, 조합활동 보장, 병원 정상운영

에 합의를 끌어냈지만 여전히 임단협이 아직 남아있고, 언제 합의사항을 깨뜨릴지 모르는 불안이 가시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청구성심병원 문제는 언제쯤 완전히 해결될 것인가? 청구성심병원은 타결이 쉽지 않은 대표적 사례이다.

그렇다고 해서 조직력이 약한 곳이든 경영상황이 좋지 않은 곳이든, 극악한 노조탄압이 벌어지는 곳이든 홍길동처럼 동네 번쩍 서에 번쩍 휘젓고 다니며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보건의료노조는 아직 막강한 힘을 갖고 있지 못하다. 사실 막말 뿐 뚜렷한 대안이 없는 것도 사실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를 사업장에 대해서는 장기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내부 조직력을 복원하는 것을 가장 중심에 두고, 부당노동행위와 노조탄압행위 등 현안문제를 사회적으로 부각시키는 투쟁을 배치하면서 승리할 때까지 꾸준하고 완강하게 투쟁을 펼쳐나가는 장기투쟁만이 현실적이고 유일한 대안이기 때문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이 장기투쟁을 각 지부에 내맡겨두지 않고 끝까지 끌어안고 갈 것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장기투쟁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조직을 지켜내고 조직력을 키워내기 위한 고통스러운 투쟁과 보건의료노조를 명실상부하고 힘있는 산별노조로 만들어내기 위한 투쟁이 함께 어우러져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